주목할만한 안전디자인 연구자료 50건

50개 자료의 제목·분량·핵심 내용·가치·국내 활용·한계·원문 링크·게시글 전체 원고를 한 탭에서 확인한다. '국내 적용·활용 방안'과 '검증할 질문·지표'는 원문의 입증 결과가 아닌 국내 적용 제안이다. 쪽수 미확인은 추정하지 않았다.

읽는 순서: C 제목 → H 가치 → I 핵심 → J 검증할 질문·지표 → K~O 상세 내용 → P 국내 활용 → Q 한계 → R~T 원제·원문 링크·저작권 → U 게시글 복사용 본문.

번호	구분	제목	발행기관	발행연도	분량(쪽)	자료 유형	이 자료가 가치 있는 이유	한눈에 보는 핵심	검증할 질문·지표	연구 배경과 목적	연구방법과 근거	주요 연구 결과	안전디자인 원칙과 방법	주요 사례와 적용	국내 적용·활용 방안(예시)	한계·유의사항	원제목	원문 링크	저작권·이용 안내
1	기초·원칙	**디자인을 통한 예방 국가계획**	NIOSH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0	48	정책·방법론	안전디자인을 연구·교육·현장 적용·정책을 잇는 국가 추진체계로 구성한 초기 원전이다. 디자이너의 역할을 정책 수준에서 제시한다.	산업시설·장비·공정·조직의 디자인 단계에서 위험을 제거하도록 추진한 미국 국가 차원의 PtD 계획이다. PtD 적용 범위를 장비·도구·작업공정·작업방법·작업조직까지 제시한다.	연구과제별 위험 제거 시점, 초기 단계 참여율, 디자인 의사결정의 위험저감 반영 여부를 추적한다. 2010년 계획을 미국의 현행 제도로 소개하지 않는다.	안전문제: 설비·공정·조직 디자인 단계의 위험 제거. 산업시설·장비·공정·조직의 디자인 단계에서 위험을 제거하도록 추진한 미국 국가 차원의 PtD 계획이다.	국가 전략과 연구·교육·실무·정책 영역별 과제, 적용 사례를 종합했다.	PtD 적용 범위를 장비·도구·작업공정·작업방법·작업조직까지 제시한다.	설계 후 보호조치보다 설계 당시 협력 사례 4건을 수록한다(NIOSH 발표문 기준). 세부 사례명은 원문 대조 필요.	PtD 원칙이 적용된 안전보건 협력 사례 4건을 수록한다(NIOSH 발표문 기준). 세부 사례명은 원문 대조 필요.	한국형 산업안전디자인 R&D 로드맵에서 과제 포트폴리오를 '연구–교육–실무–정책'으로 대조하고, 기획·조달·운영 단계별 PtD 적용 체크포인트와 참여 직군을 명시한다.	2010년 국가계획으로 현재 미국의 제도·사업 전체를 대변하는 자료는 아니다.	Prevention through Design: Plan for the National Initiative	https://www.cdc.gov/niosh/docs/2011-121/default.html 직접 PDF: https://www.c	공식 PDF 확인 | 미국 연방정부 공개영역 (CDC Stacks 'Public Domain' 표기)
2	기초·원칙	**PtD 후속 연구와 실무자료**	NIOSH	자료군	미확인	자료군	국가계획 이후 적용사례와 후속 자료가 어떻게 분화됐는지 찾아볼 수 있는 탐색 거점이다. PtD 교육모듈 4종은 국내 교육과정 설계에 참고가 된다.	PtD 교육모듈 4종(강사용 매뉴얼과 슬라이드)과 PtD Award 등을 안내한다. 단일 보고서가 없으므로 개별 연구결과를 부여할 수 없다.	직접 적용 가능한 독립 보고서 수, 최신판 확인 여부, 국내 과제와의 연계도를 관리한다. 자료군 자체에는 조사 표본이나 단일 페이지 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안전문제: 원전 이후 적용사례·수행자료. 미국 NIOSH가 공개한 Prevention through Design의 후속 자료 모음이다.	웹 자료실에서 국가계획 이후의 관련 연구·실무자료를 분야별로 확인한다.	자료군이므로 단일 연구 결과를 부여할 수 없다.	PtD의 연구·교육·실무·정책 적용 범주에 따라 별도 자료를 선택해 소개해야 한다.	교육모듈 4종이 대표 자료이다. 상세 사례는 개별 원문을 선택한 뒤 소개할 것.	국내 신규 안전디자인 과제에 맞춰 기계·건설·교육·조달 등 주제별 PtD 원문을 선별해 연결 목록을 만들고, 자료별 적용 산업과 공개 조건을 따로 기록한다.	독립된 보고서가 아니다. 디자인DB 게시 시 교육모듈 등 특정 자료로 대체하거나 「Prevention through Design: Plan for the National Initiative」와 묶어 소개하는 것이	Prevention through Design resources	https://www.cdc.gov/niosh/ptd/about/index.html	공식 무료 자료 페이지 | 재배포 확인 필요
3	기초·원칙	**좋은 일터 디자인 10대 원칙**	Safe Work Australia	2015	미확인	가이드라인	안전한 일터를 업무량, 권한, 협업, 심리사회적 조건을 포함하는 사회기술시스템으로 보게 한다. 서비스디자인과 산업안전을 잇는 공통 언어가 된다.	10대 원칙을 '왜 중요한가', '무엇을 고려하는가', '어떻게 적용하는가'의 세 부분으로 구성했다. 물리적 위험과 생체역학·인지·심리사회적 요인을 함께 다룬다.	절차상 우회 행동의 빈도, 업무 부담·자율성 인식, 위험정보 전달 누락, 안전행동 실행 조건을 전후 비교한다. 인식 변화만으로 재해 감소를 입증했다고 보지 않는다.	안전문제: 물리적·심리사회적 일터 디자인 원칙. 설계·계획 단계에서 위험을 제거하면 사고 이후의 대응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Comcare가 의뢰한 근거 보고서(Sharon Parker·Mark Griffin)를 바탕으로 작업보건·안전 원칙을 10개 항목의 핸드북으로 체계화했다.	좋은 일터 디자인은 작업자 참여, 작업과 조직 맥락 반영, 위험의 사전 제거와 지속 개선.	사용자·관리자 참여, 작업과 조직 맥락 반영, 위험의 사전 제거와 지속 개선.	특정 업종용 처방보다 여러 작업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을 제시한다.	제조·조선·물류 현장의 작업자 여정을 관찰해 인력 배치, 정보 인수인계, 예외작업, 휴식 및 보고체계를 함께 재디자인한다. 근로자와 관리자 공동 워크숍에서 10대 원칙을 점	원칙의 적용성과 실제 사고감소 효과는 별도의 현장평가가 필요하다.	Principles of Good Work Design	https://www.safeworkaustralia.gov.au/doc/principles-good-work-design DOCX:	공식 자료 페이지(PDF·DOCX 제공) 확인 | 재배포 확인 필요
4	기초·원칙	**좋은 일터 디자인의 이론적 근거**	Safe Work Australia (저자: Sharon K. Parker, 서호주대)	2015 무렵 (원문에 발행일 미표기)	54	근거연구	좋은 업무디자인의 효과를 이론적 메커니즘과 선행 근거에 연결한다. 조직문화·서비스디자인 과제의 연구가설을 구성하는 데 유용하다.	좋은 일터 디자인 원칙을 뒷받침하는 심리사회적 업무디자인 이론과 실증 근거를 정리한다. 업무자율성·지원·다양성·적정 업무부하 등 심리사회적 특성이 안전과 건강에 관련됨을 설명한다.	업무 특성과 안전 결과 간 관련성, 측정도구의 신뢰도, 교란요인을 점검한다. 일반적 직무 만족과 실제 위험 감소를 동일한 결과로 취급하지 않는다.	안전문제: Good Work Design 원칙의 근거 검토. 좋은 일터 디자인 원칙을 뒷받침하는 심리사회적 업무디자인 이론과 실증 근거를 정리한다.	서호주대 Sharon K. Parker 교수가 대학 교육용으로 작성한 문헌 검토 자료이다. 검토한 이론의 목록은 원문 대조 필요.	업무 자율성·지원·다양성·적정 업무부하 등 심리사회적 특성이 안전과 건강에 관련됨을 설명한다.	업무의 내용·책임·관계·자율성을 조직 맥락과 근로자 역량에 맞게 재디자인한다.	일터의 자율성, 직무 재구성, 팀 기반 작업 등의 문헌·논의가 포함된다.	안전문화 개선사업에서 업무 자율성·지원·과업 명료성·작업 부하를 독립변수로, 안전행동·위험 보고·심리사회적 부담을 결과변수 후보로 정의하고 현장조사 항목을 설계한다.	문헌·이론 검토 자료이므로 특정 개입의 사고감소 효과를 증명하는 연구로 인용하지 않는다. 발행연도는 원문에 표기되어 있지 않다.	Does the Evidence and Theory Support the Good Work Design Principles? An	https://www.safeworkaustralia.gov.au/resources-and-publications/reports/does-evidence-and-	공식 PDF 확인 | CC BY 3.0 Australia (SWA 로고 제외)
5	기초·원칙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원인이 된 잘못된 디자인**	Safe Work Australia	2014	미확인	실증연구	사망사고를 디자인 단계의 결정과 연결해 판정한 실증 근거이다. 안전디자인의 필요성을 수치로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다.	판정 가능한 사망 523건 중 12%(63건)는 디자인 요인이 확정적으로 기여했고, 24%(125건)는 기여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했다. 합하면 약 36%(188건)가 디자인과 관련된다.	위험 원인 중 디자인 개입 가능 사례의 비율, 판정자 간 일치도, 개입 전·후 위험요인 수를 점검한다. 호주의 12%·24%를 국내 발생 비율로 대입하지 않는다.	안전문제: 기계·설비·동력공구 관련 산재 사망에서 디자인의 기여 정도. 설계 단계에서 제거할 수 있었던 위험이 사망사고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확인하려는 연구이다.	2006~2011년 기계·설비·동력공구 관련 사망 639건 가운데 사고 정황 정보가 충분한 523건을 대상으로 디자인 기여 여부를 확정·가능·무관으로 판정·분류했다.	디자인 관련 188건에서 많이 나타난 정황은 방호장치 미흡(21%), 전복보호구조·안전벨트 부재(15%), 누전차단기 부재(12%), 인터록 부재(8%), 운전자 시야 차단(8%)이	사용 단계의 사망사고를 개발·설계 단계에서 제거할 수 있었던 위험요인으로 역추적한다.	방호장치·전복보호구조·인터록·시야 확보 등 이미 존재하는 안전기술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은 사례가 반복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례별 세부는 원문 대조 필요.	산업안전포털(산업안전보건공단) 사고사례 3,487건 중 설비·공구 관련 사례를 표본 추출해 방호장치, 조작부, 정비 접근성, 위험구역 분리 등 '디자인으로 줄일 수	판정이 제한된 사고기록과 판정자의 주관에 의존하므로 보고서도 비율을 지표적 수치로 제시한다. 호주 사례의 비율을 국내 산업재해 전체 비율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Work-related fatalities associated with unsafe design of machinery, plant and	https://www.safeworkaustralia.gov.au/resources-and-publications/reports/work-related-	공식 PDF 확인 | CC BY 3.0 Australia (SWA 로고·표지 이미지 제외)
6	인적요인	**인간의 오류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HSE	1999	73	가이드라인	사고 원인을 인지·기억·주의, 인터페이스, 교대·감독 등 재현 가능한 조건으로 분해할 수 있게 한다.	휴먼에러를 작업, 사람, 조직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한 인간공학 지침이다. 주의·기억·판단의 한계와 절차·조직체계의 문제가 안전에 영향을 준다는 관점을 제공한다.	오조작 횟수, 경고 인지·이해율, 안전한 작업 수행시간, 동일 오류 반복 여부를 평가한다. 사고 경험자의 진술만으로 모든 사고 원인을 확정하지 않는다.	안전문제: 인적 오류의 작업·조직적 원인. 사고 원인을 작업자 개인의 부주의로 귀결시키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지침이다.	사람의 실수·행동에 관련된 요인의 식별, 평가와 통제 방법을 검토하고 사례를 설명한다.	주의·기억·판단, 절차와 조직체계의 한계가 안전에 영향을 준다는 관점을 제공한다.	오류가 발생할 조건을 분석하고 작업·정보·시스템을 실수에 강하도록 디자인한다.	6장에 A~R 사례가 수록되어 있다. 예: 교대 인수인계 의사소통 개선, 지하 기관차 운전실 조명, 운전자 각성 관리.	아차사고 직후의 작업 전후 상황을 관찰·인터뷰해 가시성·알림·조작 순서·시간 압박 등 실수 유발 조건을 지도화한다. 교육 강화 외에 물리적 차단과 인터페이스 변경 대안을	1999년 제2판을 역사적 기초자료로 사용하며 현재 영국 법령 기준과 구분한다.	Reducing error and influencing behaviour (HSG48, 2nd edition)	https://www.hse.gov.uk/pubns/books/hsg48.htm 직접 PDF: https://www.hse.gov.uk/pub	공식 PDF 확인 | 재배포 확인 필요
7	인적요인	**안전장벽관리에서 인적요인**	CIEHF	2016	64 (미대조)	백서	센서·울타리·경보 같은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어도 운영·점검·의사결정 실패로 보호기능이 무너질 수 있음을 설명한다. 베리어 관리 개선 권고 33개를 제시한다.	베리어 위험관리에서 인간·조직의 기여요인을 식별하도록 돕는 영국 HSE 설명자료이다. 사고 직전의 오류와 관리체계·조직요인을 구별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같은 사고에 대한 분석자 간 원인 분류 일치도와 제안 대안의 다양성을 비교한다. 공개 요약자료에 없는 사고 원인을 사후 추정해 사실로 확정하지 않는다.	안전문제: 사고의 잠재적 인적·조직적 원인 분석. 사고조사 과정에서 인간·조직의 기여요인을 식별하도록 돕는 영국 HSE 설명자료이다.	사고조사에서 현장 행동과 그 행동을 낳은 작업·조직 조건을 함께 추적하는 분석 접근을 소개한다.	사고 직전의 오류와 관리체계·조직요인을 구별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사고조사의 질문과 원인 분석 도구에 인간공학 요소를 포함한다.	HSE 감독관 인적요인 툴킷의 사고조사 발췌본(PDF)이 첨부되어 있다. 외부 참고자료로 Energy Institute의 2008년 인적·조직요인 조사지침이 연결되어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고사례의 발생원인·예방대책 문장을 근접 원인과 잠재 원인으로 분리한 뒤, 공간·정보·업무·조직의 개입 가능성 코딩체계를 개발한다.	웹 안내자료로 별도 무료 PDF를 확인하지 못해 독립 게시 여부는 보류.	Human Factors in Accident Investigations	https://www.hse.gov.uk/humanfactors/topics/investigation.htm 직접 PDF: https://www.h	공식 무료 자료 페이지 | 공식 공개 PDF; 재배포 조건 별도 확인
8	인적요인	**위험성평가와 인적요인**	HSE	웹자료	미확인	웹자료	법정 위험성평가와 현장관찰을 연결할 첨점을 제공한다. 작업의 인지·조직 조건을 원인 가설로 다룬다.	위험성평가에 작업자의 인지·행동·조직 환경을 포함하도록 돕는 영국 HSE 자료이다. 작업자의 행위만 기록해서는 사고 예방을 위한 조건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기존 평가에서 놓친 위험요인 수, 신규 위험의 개선 조치율, 작업자 재검증 결과를 확인한다. 제안 체크리스트가 국내 법정 양식을 대체하지는 않는다.	안전문제: 위험성평가와 작업자 행동 조건. 위험성평가에 작업자의 인지·행동·조직 환경을 포함하도록 돕는 영국 HSE 자료이다.	위험성평가 단계에서 인간공학적 요인을 식별하는 주제별 안내이다.	작업자의 행위만 기록해서는 사고 예방을 위한 조건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작업·도구·사용환경·훈련·조직의 관계를 위험성평가 항목으로 포함한다.	웹 안내자료이며 수행영향요인(PIFs), 과업 이해 등 짧은 PDF 도구가 첨부되어 있다.	위험성평가 양식에 정보가시성, 비정형 작업, 시간 압박, 작업자 판단 부담, 협력업체 간 조정 실패를 질문항목으로 추가해 현장 워크스루를 실시한다.	웹 안내자료로 원문 보고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Safety Critical Communications	https://www.hse.gov.uk/humanfactors/topics/communications.htm 직접 PDF: https://www.h	공식 웹페이지·첨부 PDF 확인 | 재배포 확인 필요
9	인적요인	**사고조사의 인간공학**	HSE	웹자료	미확인	웹자료	사고조사 기록을 '최종 실수–배경 조건–관리체계 결함'으로 나누는 질문을 제공해, 사고사례 데이터에서 디자인 기회를 찾는 분류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사고조사 과정에서 인간·조직의 기여요인을 식별하도록 돕는 영국 HSE 설명자료이다. 사고 직전의 오류와 관리체계·조직요인을 구별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같은 사고에 대한 분석자 간 원인 분류 일치도와 제안 대안의 다양성을 비교한다. 공개 요약자료에 없는 사고 원인을 사후 추정해 사실로 확정하지 않는다.	안전문제: 사고의 잠재적 인적·조직적 원인 분석. 사고조사 과정에서 인간·조직의 기여요인을 식별하도록 돕는 영국 HSE 설명자료이다.	사고조사에서 현장 행동과 그 행동을 낳은 작업·조직 조건을 함께 추적하는 분석 접근을 소개한다.	사고 직전의 오류와 관리체계·조직요인을 구별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사고조사의 질문과 원인 분석 도구에 인간공학 요소를 포함한다.	HSE 감독관 인적요인 툴킷의 사고조사 발췌본(PDF)이 첨부되어 있다. 외부 참고자료로 Energy Institute의 2008년 인적·조직요인 조사지침이 연결되어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고사례의 발생원인·예방대책 문장을 근접 원인과 잠재 원인으로 분리한 뒤, 공간·정보·업무·조직의 개입 가능성 코딩체계를 개발한다.	웹 안내자료로 별도 무료 PDF를 확인하지 못해 독립 게시 여부는 보류.	Human Factors in Accident Investigations	https://www.hse.gov.uk/humanfactors/topics/investigation.htm 직접 PDF: https://www.h	공식 웹페이지·첨부 PDF 확인 | 재배포 확인 필요
10	인적요인	**안전 핵심정보의 의사소통**	HSE	웹자료	미확인	웹자료	인수인계·작업 허가·비상 전파 과정의 메시지 누락과 오해를 디자인 문제로 다루게 한다.	교대 인수인계와 비상·고위험 업무에서 안전 핵심정보 전달의 중요성을 다룬 HSE 자료이다. 위험정보를 전달하는 사람·매체·맥락이 작업 안전을 좌우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인수인계 필수정보 누락률, 수신자의 위험 이해도, 확인 소요시간, 재질문 건수를 점검한다. 안내문 발송량을 정보 전달 성과로 삼지 않는다.	안전문제: 인수인계·위험정보 전달. 교대 인수인계와 비상·고위험 업무에서 안전 핵심정보 전달의 중요성을 다룬 HSE 자료이다.	안전 관련 커뮤니케이션의 실패 조건과 개선 원칙을 주제로 설명한다.	위험정보를 전달하는 사람·매체·맥락이 작업 안전을 좌우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정보 구조, 인수인계 절차, 경고 메시지, 피드백과 확인체계를 통합해 개선한다.	감독관 툴킷 발췌본과 개인 간 의사소통 모델 PDF가 첨부되어 있다. 구체적 현장 사례는 원문 확인 전까지 단정하지 않는다.	교대 근무·협력업체 공동작업 현장의 인수인계를 관찰해 필수 메시지·확인응답·매체 전환을 도식화하고, 위험상태 표기·확인절차·모바일 작업허가 화면을 개선한다.	웹 안내자료로 원문 보고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Safety Critical Communications	https://www.hse.gov.uk/humanfactors/topics/communications.htm 직접 PDF: https://www.h	공식 웹페이지·첨부 PDF 확인 | 재배포 확인 필요
11	산업·건설 설계	**기계·설비의 안전 디자인**	Safe Work Australia	2014	24	가이드라인	기계의 구조·조작부·방호·정비 접근성에서 위험을 제거하는 산업 디자인 판단 기준을 제공한다.	기계·설비를 개발·개조하는 디자이너의 안전관리 역할을 다룬 호주 실무 가이드이다. 안전 수준은 초기 사양·기능·유지보수 접근성에 관한 디자인 의사결정에서 결정된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위험구역 접근 가능성, 방호장치 무력화 가능성, 정비 시 격리 절차 수행률, 반복 오조작 여부를 시험한다. 적용 법정 안전기준과 별도로 대조한다.	안전문제: 기계·설비 생애주기 위험 제거. 기계·설비를 개발·개조하는 디자이너의 안전관리 역할을 다룬 호주 실무 가이드이다.	설비 사용 목적·위험원·유지관리 등 생애주기별 설계검토 절차와 위험성평가를 설명한다.	안전 수준은 초기 사양·기능·유지보수 접근성에 관한 디자인 의사결정에서 결정된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기계 방호·유지보수 접근성을 설계 프로세스에 통합해야 한다.	설비 위험식별→초기 디자인→위험통제→시험·검증의 절차도와 체크 항목 제공.	중소 제조업 설비 리디자인과 신규 장비 발주 시 작업자 접근부, 비정상 작동, 정비 중 불시기동, 청소 동작을 사용 시나리오에 넣고 시제품·도면 안전성 검토에 적용한다.	2014년 PDF를 기준으로 하며 호주의 최신 법률 요구사항과 구분.	Guide for Safe Design of Plant	https://www.safeworkaustralia.gov.au/doc/guide-safe-design-plant 직접 PDF: https://www.s	공식 PDF 확인 | 라이선스 표기 미확인 → 재배포 확인 필요
12	산업·건설 설계	**구조물의 안전디자인 실천규약**	Safe Work Australia	2012 (최초 모델 규약)	42	실천규약	디자인 책임을 시공·사용·청소·수리·해체까지 생애주기 전체로 확장한다. 건축 단계와 유지관리 단계 사이의 안전 간극을 보여준다.	작업장으로 사용될 건축물·구조물의 생애주기 위험을 다루는 호주 모델 실천규약이다. 시공·사용·청소·유지관리·해체 단계의 위험을 초기 디자인에서 다뤄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다.	유지관리 위험작업의 대체 가능성, 추락위험 접근 지점, 안전한 점검동선 확보율을 확인한다. 호주 실천규약을 국내 건축 법적 기준 대신 사용할 수 없다.	안전문제: 건축·시공·유지관리·해체 단계의 위험 예방. 작업장으로 사용될 건축물·구조물의 생애주기 위험을 다루는 호주 모델 실천규약이다.	건축가·건물디자이너·엔지니어·발주처·개발사·시공자의 설계 의사결정 책임을 안내한다.	시공·사용·청소·유지관리·해체 단계의 위험을 초기 디자인에서 다뤄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다.	구조물 안전디자인 체크리스트와 설계 위험 검토를 단계별로 적용한다.	부록 A 용어, B 역할·책임, C 안전디자인 체크리스트, D 사례(예시 1~7)로 구성된다.	공공청사·산업시설 발주에서 옥상 접근, 창호 청소, 고소부 설비교체, 비상대피 동선을 생애주기별 위험지도에 표시하고 설계안 검토·발주 요구사항에 반영한다.	호주의 모델 코드이며 법적 효력은 관할 주·준주별 채택 상태에 따라 다르다. 2012-2018·2024년판의 내용과 라이선스가 다르므로 인용 판본을 밝힌다.	Model Code of Practice: Safe design of structures	https://www.safeworkaustralia.gov.au/doc/model-code-practice-safe-design-structures	공식 PDF 확인 | CC BY 4.0 (SWA 로고 제외, 2024-11 판 기준)
13	산업·건설 설계	**일터를 위한 건강·안전디자인 입문**	WorkSafe New Zealand	2018	미확인	가이드라인	안전디자인의 5대 요소(역량 있는 팀, 생애주기 접근, 위험관리, 문서화·소통, 점검·검토)를 제시해 설계 참여자의 역할을 논의하는 입문자료로 쓸 수 있다.	구조물·설비·물질을 설계하는 사람과 설계를 의뢰하는 사업자를 위한 입문 지침이다. 역량 있는 팀, 생애주기 접근, 위험관리(통제 위계), 문서화와 소통, 점검과 검토를 5대 요소로 제시한다.	역할 공백, 단계별 위험 검토 누락, 사용자·운영자 참여율을 점검한다. 원문 버전과 국가별 용어 차이를 먼저 확인한다.	안전문제: 설계 초기에 위험을 제거. 뉴질랜드 WorkSafe가 구조물·설비·물질을 개발하는 디자이너를 위해 마련한 안전디자인 입문 지침이다.	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2015에 근거해 디자인 책임과 생애주기 위험관리 개념을 설명한다.	역량 있는 팀, 생애주기 접근, 위험관리(통제 위계), 문서화와 소통, 점검과 검토를 안전디자인의 5대 요소로 제시한다.	개발 초기에 위험을 제거하고 실제 사용·유지관리 단계까지 설계 의사결정의 효과를 고려한다.	구조물·설비·물질별 설계 고려사항, 뉴질랜드 사례 5건, 구조물 안전디자인 체크리스트(부록 C)를 수록한다.	공공시설·제품 R&D 착수 회의에서 기능별 책임표를 작성하고, 개발·제작·운영·폐기 단계마다 누가 어떤 위험정보를 생산·검토·인계할지 결정한다.	뉴질랜드 법(HSWA 2015)의 의무 체계를 전제로 하므로 국내 법적 의무와 구분한다.	Health and Safety by Design: An Introduction	https://www.worksafe.govt.nz/topic-and-industry/health-and-safety-by-design/health	공식 PDF 확인 | 재배포 확인 필요
14	산업·건설 설계	**싱가포르 디자인을 통한 안전 지침**	싱가포르 WSH Council·인력부 (MOM)	2022	미확인	가이드라인	위험의 발견과 처리를 초기 디자인 의사결정, DfS 검토회의, DfS Register 기록 책임으로 제도화한 구체적 운영모델이다.	싱가포르 건설사업의 설계 단계 위험관리 지침이다. 개발자·설계자·시공자·DfS 전문가의 역할과 DfS 검토회의, DfS Register 운영을 제시한다.	기획·설계 단계에서 발견된 위험의 해결 비율, 잔여 위험 인계 누락, 설계 변경 후 추가 위험 발생 여부를 본다. 싱가포르 규정을 국내 법적 의무로 오인하지 않는다.	안전문제: DfS 책임분담·위험등록·검토. 싱가포르가 건설사업 초기부터 위험을 확인·줄이기 위해 마련한 Design for Safety 가이드이다.	개발자·설계자·시공자·DfS 전문가·건물 소유주의 의무와 GUIDE 절차, 설계위험 평가, DfS 검토회의와 DfS Register 운영 방법을 정리한다.	DfS Register는 사업 착수부터 철거까지 구조물과 함께 유지되며 잔여위험 정보를 청소·유지관리·철거 담당자에게 전달한다.	사업 착수 단계부터 DfS 검토회의를 열고, 예견가능한 설계위험을 제거하거나 합리적으로 가능한 수준까지 낮추며, 잔여위험을 DfS Register로 인계한다.	부록 A~K에 용어 정의, 의무 요약, 역할 목록, 체크리스트, 서식 예시를 수록한다.	산업단지·공공시설 개선사업의 착수 단계에 DfS 검토회의, 설계 변경 전 위험 검토, 잔여 위험 인계서, 발주자·디자이너·시공자 역할표를 시범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계약금액 1,000만 싱가포르달러 이상 사업 등으로 한정된다. 싱가포르 법적 의무의 범위와 국내 적용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한다.	Workplace Safety and Health Guidelines: Design for Safety (Revised	https://www.tal.sg/wshc/resources/publications/wsh-guidelines/workplace-safety-and-	공식 PDF 확인 | CC BY 3.0 Australia (SWA 로고·표지 이미지 제외)
15	산업·건설 설계	**홍콩 디자인을 통한 안전 지침**	홍콩 발전국 (Development Bureau, DEVB)	2016	미확인	가이드라인	공공 발주자·설계자·시공자의 위험검토, 문서화, 정보 인계 역할을 명확히 한 비교 사례이다.	홍콩 개발국(Development Bureau)이 공공공사 설계 단계의 안전검토를 지원하는 지침이다. 설계 초기 단계가 완료 후보다 위험을 피하거나 줄일 재량이 크다는 접근을 설명한다.	검토단계별 누락 위험, 인계서 작성 여부, 설계변경 위험 검토의 추적 가능성을 평가한다. 홍콩 지침의 적용 범위와 국내 절차 차이를 구분한다.	안전문제: 건설 디자인 단계 위험 통제. 홍콩 개발국(Development Bureau)이 공공공사 설계 단계의 안전검토를 지원하는 지침이다.	설계 위험의 식별, 이해관계자 의견 기록, 시공·유지보수 시나리오 검토 절차를 담았다.	설계 초기 단계가 완료 후보다 위험을 피하거나 줄일 재량이 크다는 접근을 설명한다.	설계 검토 회의·기록지와 작업순서 변경·모듈화 등 위험저감 대안을 평가한다.	위험등록부 예시(부록 C), 체크리스트, 서식, 적·황·녹 목록을 부록으로 수록한다.	지자체 공공건축·시설사업에서 초기 디자인 검토서와 운영자 인계자료의 항목을 비교하고, 위험 발생 시점별 발주자·설계자·시공자 책임을 표로 정리한다.	홍콩 공공공사 제도에 맞춘 자료로 국내 법적 의무와 혼동하지 않는다. PDF 각 면의 OSHC 표기와 DEVB 발간 관계는 표지로 확인한다.	Guidance Notes on Design for Safety	https://www.devb.gov.hk/filemanager/en/content_29/Design_for_Safety_Guidance_Notes.pdf	공식 PDF 확인 | 재배포 확인 필요
16	산업·건설 설계	**사업장 차량·보행자 동선의 안전**	HSE	2014 3판	53	가이드라인	보행자와 지게차가 물리적으로 충돌할 기회를 레이아웃·시야·교차점 디자인으로 줄이는 접근을 제시한다.	지게차·운반차량과 보행자의 충돌을 줄이는 사업장 교통안전 지침이다. 안전한 현장(설계와 활동), 안전한 차량, 안전한 운전자의 세 영역으로 위험을 관리한다.	보행자–차량 혼재 횟수, 사각지대 노출, 위험 교차점 수, 우회 동선의 사용률을 전후 비교한다. 운전자 교육만으로 개선효과를 판단하지 않는다.	안전문제: 현장 내 차량·보행자 동선 분리. 지게차·운반차량과 보행자의 충돌을 줄이는 사업장 교통안전 실무지침이다.	사업장 도로·동선·차량·운전자 측면에서 교통위험을 식별하고 관리한다.	안전한 현장(설계와 활동), 안전한 차량, 안전한 운전자의 세 영역으로 위험을 관리한다.	보행자·차량 동선 분리, 교차지점 관리, 시야 확보, 이동경로 및 표지 디자인.	차량 운행환경의 개선 예시를 제공하며 특정 사고감소율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산업단지와 공장의 출퇴근·물류 이동 경로를 시간대별로 지도화해 보행자·지게차 혼재 구간, 후진 사각지대, 출입구·적재장 교차지점을 구분하고 분리 동선을 시범 운영한	영국 기준의 작업장 교통안전지침으로 국내 법규와 별도 대조 필요.	A Guide to Workplace Transport Safety (HSG136)	https://www.hse.gov.uk/pubns/books/hsg136.htm 직접 PDF: https://www.hse.gov.uk/pub	공식 PDF 확인 | 재배포 확인 필요
17	AI·디지털 일터	**AI 기반 노동자 관리 개요**	EU-OSHA (저자: Christenko, Jankauskaite 외)	2022	99	연구보고서	AI 안전관리의 기능과 감시·통제·업무강화 위험을 함께 다뤄 기술 도입의 평가 기준을 넓힌다.	AI 기반 작업자 관리가 산업안전·건강과 노동자의 경험에 미치는 기회·위험을 다룬 EU-OSHA 연구이다. 자동화·모니터링이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지만 감시·통제·스트레스·자율성 저하 위험도 제기한다.	위험 탐지의 오탐·미탐, 경고 수용률,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작업자 신뢰·위축, 자동 판단의 인간 검토 가능성을 측정한다.	안전문제: AI 관리의 노동자 건강·안전과 자율성. AI 기반 작업자 관리가 산업안전·건강과 노동자의 경험에 미치는 기회·위험을 다룬 EU-OSHA 연구이다.	AI 작업자 관리 적용 유형과 OSH에 미치는 영향, 위험 통제의 정책·운영 쟁점을 정리한다.	자동화·모니터링이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지만 감시·통제·스트레스·자율성 저하 위험도 제기한다.	인간의 통제권, 설명 가능성, 노동자 참여, 평가·구제절차를 시스템 요구사항으로 반영한다.	직접적인 사업장 실증 사례의 범위는 본 보고서 원문 판본 확인 필요.	작업자 행동영상·웨어러블·생산성 모니터링 사업의 기획단계에 노동자 참여, 최소한의 데이터 수집, 경고 이의제기, 오탐 대응, 관리자 권한을 포함하는 윤리·UX 평가를	AI 적용의 잠재 위험·기회와 경험적으로 확인된 효과를 엄격히 구분.	Artificial Intelligence for Worker Management: An Overview	https://osha.europa.eu/en/publications/artificial-intelligence-worker-management-implications-occupational	공식 자료 페이지 확인 | 재배포 확인 필요
18	AI·디지털 일터	**AI 기반 노동자 관리와 산업안전보건**	EU-OSHA	2022	55	연구보고서	AI 기반 작업자 관리가 노동자 안전·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예방 방향을 정리한 EU 공공연구이다. 국내 AI 안전관리 과제의 위험 검토 기준이 된다.	AI·알고리즘 기반 작업자 관리의 산업안전보건 영향과 예방 조치를 정리한 보고서이다. 같은 연구 연작에 개요(2022-06), 위험과 기회·예방조치 정책브리프가 있다.	감시 강도, 노동자 참여, 인간 감독, 위험성평가 반영 여부를 점검한다. EU AI법 시행 이후의 변화는 후속 자료로 보완한다.	안전문제: AI 작업자 관리의 산업안전보건 영향. 작업 배정·성과 감시·자동 의사결정이 노동자의 건강·안전에 주는 영향을 확인하려는 연구이다.	EU-OSHA 연구 연작의 일부로 문헌과 사례를 검토했다. 세부 연구방법은 원문 대조 필요.	주요 결과는 원문 정독 후 기재한다. 연작 개요 보고서(An overview, 2022-06)와 함께 소개하는 것이 좋다.	사람의 감독, 노동자 참여, 투명성, 위험성평가를 AI 관리시스템 설계 요구사항으로 반영한다(원문 대조 필요).	EU-OSHA 목록에 2024년 노동자 참여 보고서, 2026년 AI법 시사점 토론문 등 후속 자료가 이어진다.	국내 AI 기반 제조안전 R&D의 위험목록을 점검할 때 감시, 알고리즘 결정, 노동자 참여, 인간 감독 항목을 이 보고서와 EU-OSHA 후속 자료로 대조한다.	2022년 연구로 EU AI법 시행 이후의 제도 변화는 후속 자료로 보완한다.	Artificial intelligence for worker management: implications for occupational	https://osha.europa.eu/en/publications/artificial-intelligence-worker-management-implications-occupational	공식 자료 페이지 확인 (PDF 링크는 도서관 서지 기재, 작동 미확인) | 재배포 확인 필요
19	기후·재난	**센다이 재난위험 경감 프레임워크**	UNDRR / UN	2015	32	국제정책	재난관리의 중심을 노출·취약성 저감과 사전 투자에 두어 정책디자인의 상위 원칙을 제공한다.	2015~2030년 재난위험경감의 7대 글로벌 목표와 4대 우선행동을 정한 UN 국제 프레임워크이다. 새로운 위험의 발생을 막고 기존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위험취

26	의료·환자 안전	**보건·돌봄의 인간공학 백서**	CIEHF	2018	12 (미대조)	백서	의료안전 프로젝트에 인간공학 전문가가 언제 어떤 역량으로 참여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역할·역량 참고자료이다. 디자인팀 구성의 빈칸을 드러내는 데 유용하다.	보건·돌봄 시스템에서 인간공학 전문성을 어떻게 활용할지 설명한 CIEHF 백서이다. 시스템 수준의 지속 가능한 개선과 이를 위한 인간공학 역량 확보를 지향한다.	인간공학 검토 단계의 누락, 사용자 시험의 적절성, 팀 간 의사결정 기록을 확인한다. 역량 제안이지 모든 사업의 의무 인력 기준은 아니다.	안전문제: 의료·돌봄 인간공학 역량 및 적용. 보건·돌봄 시스템에서 인간공학 전문성을 어떻게 활용할지 설명한 CIEHF 백서이다.	현장의 문제정의·의사결정·개선 활동에서 필요한 인간공학 역량과 역할을 정리한다.	시스템 수준의 지속 가능한 개선과 이를 위한 인간공학 역량·전문가 투입을 지향한다.	인간공학 분석과 서비스 프로세스 개선을 연계하고 적합한 역량·전문가를 투입한다.	특정 사고감소율을 검증한 실증연구는 아니다.	국내 병원 안전서비스디자인 사업의 팀 구성표에 인간공학·임상·환자경험·시스템 분석 역량을 대조하고 조사·프로토타입·평가 단계별 협업 책임을 정의한다.	CC BY-NC-ND 조건이므로 변경·번역 원문 재배포 권한에 주의.	Human Factors for Health & Social Care	https://ergonomics.org.uk/resource/human-factors-in-health-and-social-care.html	공식 무료 자료 페이지 | CC BY-NC-ND 4.0 (비영리·변경금지: 원문 사용 조건 확인)
27	의료·환자 안전	**투약으로 인한 위해 줄이기**	WHO	2024	36	정책브리프	투약 위해를 의약품 정보와 처방·조제·투여·복약의 연속된 과정에서 다루도록 한다.	투약 위해 예방을 위한 WHO 정책 브리프로 사람·제품·서비스시스템을 함께 다룬다. 환자·대중, 보건의료 인력, 의약품 제품, 약물 사용 시스템 및 절차를 개선할 대상으로 다룬다.	용량·복용시간 이해 오류, 확인 절차 누락, 환자 질문·재문의 빈도를 측정한다. 개선안의 의학적 정확성은 전문가 검증을 전제로 한다.	안전문제: 투약 관련 사용오류·서비스 안전. 투약 위해 예방을 위한 WHO 정책 브리프로 사람·제품·서비스시스템을 함께 다룬다.	WHO Medication Without Harm 활동의 목표와 실행영역·권고안을 정리한다.	환자·대중, 보건의료 인력, 의약품 제품, 약물 사용 시스템 및 절차를 개선할 대상으로 다룬다.	고위험 상황, 다약제 복용, 치료 전환의 3개 실행영역에 걸친 환자 중심 투약안전 해법을 제시한다.	특정 제품 사례나 정량적 성과는 36쪽 원문에서 추후 확인.	병원·약국·가정 간 약물정보가 전환되는 여정을 조사해 약 이름·용량·시간 표기, 복약 안내, 사용자 확인 동작을 비교하고 정보·인터페이스 시제품을 검증한다.	정책브리프의 권고와 실험으로 입증된 개별 디자인 효과를 구분.	Medication Without Harm: Policy Brief	https://www.who.int/publications/i/item/9789240062764	공식 무료 자료 페이지 | CC BY-NC-SA 3.0 IGO
28	의료·환자 안전	**고위험 상황에서 의약품 안전**	WHO	2019	48	기술보고서	응급실·중환자실처럼 다중 작업과 높은 시간 압박이 겹치는 상황의 투약 위험을 별도 문제로 다뤄, 고위험 접점 중심의 디자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고위험 상황의 투약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WHO 기술보고서이다. 고위험 약물, 의료인·환자 요인, 업무환경 시스템을 위해의 3대 기여요인으로 본다.	준비·투여 단계의 오류 발생 가능성과, 이중 확인 실행률, 경고 오인률을 평가한다. 환자안전을 고려해 실제 진료 이전에 모의 환경 검증을 우선한다.	안전문제: 고위험 투약 상황의 위해 예방. 고위험 상황의 투약 오류를 예방하기 위한 WHO 기술보고서이다.	투약 고위험 조건과 의료서비스 체계의 예방 접근을 종합한다.	고위험 약물, 의료인·환자 요인, 업무환경 시스템의 세 요인이 결합할 때 중대한 위해 가능성이 커진다고 본다.	고위험 투약 상황에서 표준화·의사소통·재확인·다중 안전장치의 디자인 검토.	보고서 내 구체적 실천사례는 원문 대조 후 입력 필요.	고위험 약물의 처방–준비–투여 과정에서 유사명칭·주의 분산·이중 확인 실패 등의 사용 시나리오를 의료진과 검토하고 알림·구분·확인 장치를 시험한다.	임상적 권고는 전문의료인 검토가 필수이며 의료행위 지침으로 직접 사용할 수 없다.	Medication Safety in High-risk Situations	https://www.who.int/publications/i/item/medication-safety-in-high-risk-situations	공식 무료 자료 페이지 | CC BY-NC-SA 3.0 IGO
29	의료·환자 안전	**다약제 복용과 안전**	WHO	2019	61	기술보고서	다약제 복용 문제를 치료 전환·상호작용·정보관리가 얽힌 복합 서비스 문제로 파악하게 한다.	다약제 복용 환경에서 환자에게 적합한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WHO 보고서이다. 고령화와 여러 만성질환으로 복용 약물이 증가할 때 개인 맞춤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복약 목록의 일치도, 약 변경 정보 누락, 사용자의 복약 일정 이해도를 확인한다. 임상적 처방판단은 의료전문가의 책임 범위로 둔다.	안전문제: 다약제 복용 사용자·의료서비스. 다약제 복용 환경에서 환자에게 적합한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WHO 보고서이다.	다약제 복용의 위험과 검토 대상 우선순위·다직종 협력·환자 참여 접근을 정리한다.	고령화와 여러 만성질환으로 복용 약물이 증가할 때 개인 맞춤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환자·가족·의료진의 약물 검토 과정과 복약정보 흐름을 사람 중심으로 디자인한다.	환자와 의료진이 약물 검토에 참여하는 절차·도구 사례를 포함한다.	고령자의 약 목록 관리, 병원 간 정보 이동, 복약 중단·변경 알림 경험을 조사하고 환자·보호자·약사가 함께 쓰는 약물목록·확인 서비스를 디자인한다.	WHO 출판물 페이지는 61쪽으로 표기한다. 임상 판단은 전문 의료인 검토가 필요하다.	Medication Safety in Polypharmacy	https://www.who.int/publications/i/item/WHO-UHC-SDS-2019.11	공식 무료 자료 페이지 | CC BY-NC-SA 3.0 IGO
30	의료·환자 안전	**예방 가능한 의약품 위해의 세계적 부담**	WHO	2024	32	체계적 문헌고찰	예방 가능한 투약 위해의 규모·유형을 묻헌 근거로 보여주어 연구 대상과 우선순위 선택을 돕는다.	예방 가능한 의약품 관련 위해의 유병 정도·특성을 국제문헌으로 종합한 연구이다. 투약 위해의 규모·유형·심각성을 비교해 개선 우선순위 설정을 지원한다.	근거 연구의 이질성, 위해 정의, 분모·기간 차이를 검토한다. 세계 평균을 한국의 병원 단위 목표치로 바로 전용하지 않는다.	안전문제: 투약 위해 규모·근거 평가. 예방 가능한 의약품 관련 위해의 유병 정도·특성을 국제문헌으로 종합한 연구이다.	예방 가능한 투약 위해의 빈도·유형·심각도에 관한 연구를 저·중소득국 연구까지 포함해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메타분석을 수행했다.	투약 위해의 규모·유형·심각성을 비교해 개선 우선순위 설정을 지원한다.	문제가 빈번하거나 영향이 큰 투약 단계에 사용자 중심 개선개입을 집중할 근거를 제시한다.	국제 연구를 종합한 분석이며 개별 디자인 프로토타입 평가는 포함하지 않는다.	국내 의료기관의 복약·투약 안전 과제를 기획할 때 위해 유형·빈도·중증도를 구분하고 국가자료와 원문 지표 정의를 대조해 문제규모와 성과지표 후보를 설정한다.	지역·자료원·위해 정의·표본의 차이를 확인한 뒤 숫자를 인용해야 한다.	Global Burden of Preventable Medication-related Harm	https://www.who.int/publications/i/item/9789240088887	공식 무료 자료 페이지 | CC BY-NC-SA 3.0 IGO
31	교통안전	**도로안전 행동 10개년 글로벌 계획**	WHO / UN	2021	36	국제정책	사람이 실수하지 않아야 안전하다는 전제를 바꾸고, 실수에도 치명적 피해가 나지 않는 도로·차량·운영의 다층적 책임을 제시하는 국제 정책 로드맵이다.	2021~2030년 교통사고 사망·중상을 줄이기 위한 WHO-UN 국제행동계획이다. 인간의 실수를 전제로 도로와 교통시스템을 디자인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사망·중상 사고, 위험노출, 속도, 이동 약자의 안전 접근성을 구분해 성과지표를 선정한다. 글로벌 권고안을 국내 실증효과로 표현하지 않는다.	안전문제: 안전시스템 교통정책. 2021~2030년 교통사고 사망·중상을 줄이기 위한 WHO-UN 국제행동계획이다.	안전시스템(Safe System) 접근을 바탕으로 제도·인프라·교통수단·행동·대응을 포괄한다.	인간의 실수를 전제로 도로와 교통시스템을 디자인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안전한 도로·속도·차량·교통참여자 행동·사고 후 대응을 통합한다.	국가계획 수립을 위한 권고와 전략적 개입 분야를 담고 있다.	국내 보행안전·교통약자 이동·산업단지 통근 및 물류 등선 사업을 도로·차량·속도·이용행동·사후 대응 영역으로 분류해 디자인 책임의 사각지대를 찾는다.	Global Plan for the Decade of Action for Road Safety 2021–2030	https://www.who.int/publications/m/item/global-plan-for-the-decade-of-action-for-road-safety-2021-2030	공식 무료 자료 페이지 | 재배포 확인 필요
32	교통안전	**세계 도로안전 현황 2023**	WHO	2023	81 (미대조)	통계보고서	교통안전 개선사업의 필요성을 국가·지역 간 사망·위험노출·정책 실행 수준에 비춰 설명할 수 있는 비교 데이터다.	2021년 세계 도로교통 사망자는 약 119만 명으로 추정된다. 10개국이 2010년 대비 사망자를 50% 이상 줄였고, 감소폭이 큰 곳은 안전시스템 접근을 적용한 곳이었다.	사망률·안전 인프라 기준의 조사 범위·연도를 맞춰 비교한다. 국가 순위 변화가 특정 디자인 개입의 인과적 성과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안전문제: 국가별 교통사망·교통안전 정책. 세계 교통사고 사망과 도로안전 정책의 현황·격차를 분석한 WHO 통계보고서이다.	국가·지역별 도로교통 손상 지표와 정책·인프라 현황을 종합한다.	2021년 사망자 약 119만 명, 10개국 50% 이상 감소를 보고한다. 평가 도로 중 보행자 기준 최소 3성 안전등급을 충족한 비율은 21%, 자전거 차로가 있는 비율은 0.2%	취약한 도로 이용자와 불충분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디자인 개입 대상을 선정한다.	보행자 안전수준, 자전거 기반시설 등의 지표를 원문 수치·정의에 맞춰 활용.	국내 보행·자전거·고령 운전자 안전디자인 의제를 설정할 때 WHO 지표의 분모·정의를 확인해 한국의 위치를 비교하고 디자인으로 개입 가능한 위험을 구분한다.	지역별 인구·교통량·조사 정의가 달라 단순한 국가 순위만으로 정책 효과를 단정할 수 없다.	Global Status Report on Road Safety 2023	https://www.who.int/teams/social-determinants-of-health/safety-and-mobility/global-status-report-on-road-safety-2023	공식 무료 자료 페이지 | CC BY-NC-SA 3.0 IGO
33	교통안전	**교통사망 제로를 향한 안전시스템 전환**	ITF / OECD	2016	162	정책·연구보고서	Vision Zero 등 국가 경험을 통해 안전시스템 전환에 법·조직·책임·평가체계의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사망과 중상을 용인하지 않는 Safe System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OECD/ITF 정책연구다. 사람이 실수해도 치명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차원의 책임과 안전장치를 강조한다.	위험 제거책 비중, 도로 이용자 실수 시 피해 최소화, 성과평가 책임의 명확성을 점검한다. 국가별 정책 성과의 인과 해석에는 맥락 비교가 필요하다.	안전문제: 인간 실수를 전제로 하는 Safe System. 사망과 중상을 용인하지 않는 Safe System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OECD/ITF 정책연구다.	Vision Zero와 Sustainable Safety를 포함해 여러 국가의 실행·정책 경험을 검토했다.	사람이 실수해도 치명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차원의 책임과 안전장치를 강조한다.	인간의 오류 허용, 다중 안전장치, 측정 가능한 목표, 안전한 도로·속도·차량의 통합.	스웨덴과 네덜란드의 선도적 접근을 비교 소개한다.	국내 지자체 교통안전과 산업현장 안전사업에서 보행자 과실 중심 대책과 시스템 책임 기반 대책을 비교하고, 발주–디자인–운영자 간 위험 책임 배분을 검토한다.	국가별 맥락이 다르므로 사례별 사고감소율의 직접 전이는 부적절하다.	Zero Road Deaths and Serious Injuries: Leading a Paradigm Shift to a Safe System	https://www.itf-oecd.org/zero-road-deaths 직접 PDF: https://www.itf-	공식 PDF 확인 | © OECD 2016. 개인 이용·출처 표기 인용 허용. 공개·상업 이용·변역은
34	교통안전	**안전시스템 도로 디자인 개입 우선순위**	US FHWA	2024	38	디자인 도구	안전투자 우선순위를 충돌 제거, 속도 저감, 시간 분리, 주의·인지 향상의 순서로 정한 디자인 선택의 위계가 명확하다.	도로안전 개입을 위험 제거에서 인지 향상까지 우선순위화한 미국 FHWA 안전시스템 도구이다. 심각한 충돌의 가능성을 먼저 제거하고 남는 위험에 대한 속도·시간·인지 개입을 고려한다.	위험 교차점 제거 수, 속도·노출 변화, 충돌 가능 상황의 감소를 확인한다. FHWA의 도로용 위계를 작업장에 옮길 때 법정 요건과 현장 제약을 별도로 검토한다.	안전문제: 충돌 제거·감속·시간 분리·인지 개선. 도로안전 개입을 위험 제거에서 인지 향상까지 우선순위화한 미국 FHWA 안전시스템 도구이다.	Safe System 원칙을 도로 기하구조·속도·충돌 노출·정보제공 개입의 단계로 배열한다.	심각한 충돌의 가능성을 먼저 제거하고 남는 위험에 대한 속도·시간·인지 개입을 고려한다.	위험 제거→속도 낮추기→시점 분리→주의·인지 개선 순으로 디자인 개입을 검토한다.	도로안전디자인 계층도와 적용 예시를 제공하는 간결한 시각자료.	국내 교통사고 다발 지점, 산업단지 물류도로, 공장 지게차 통행로의 개선안을 '충돌 제거→속도 저감→시간·공간 분리→주의 환기' 순서로 재분류한다.	도로분야의 도구이므로 모든 산업현장에 그대로 적용하는 규정은 아니다.	Safe System Roadway Design Hierarchy: Engineering and Infrastructure-...	https://highways.dot.gov/sites/fhwa.dot.gov/files/2024-01/Safe_System_Roadway_Design_Hierarc...	공식 PDF 확인 | 재배포 확인 필요
35	교통안전	**운전자·차량 인터페이스 안간공학 디자인 지침**	NHTSA (저자: John L. Campbell 외)	2016	260	디자인 가이드라인	운전자 주의분산과 작업부하를 고려한 경고·표시·조작 디자인 지침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문헌이다. 작업장 차량·장비 인터페이스 연구의 출발점이 된다.	주의분산, 운전자 작업부하, 운전자 교육 같은 일반 고려사항과 안전 메시지·경고 단계·다중감각 경보의 디자인 지침을 제시한다.	경고 인지시간, 주행 중 시선 이탈, 조작 오류를 모의 시험한다. 원문 스스로 표준을 대신하지 않는 보완 지침이라고 밝힌다.	안전문제: 운전자-차량 HMI와 주의력. 차량 정보·경고 시스템이 늘어나면서 인터페이스가 운전자 주의를 분산시키는 위험에 대응하려는 지침이다.	기존 고품질 연구와 인간공학 기본 개념을 근거로 지침을 정리했다. 연구자·디자이너·완성차와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다.	시각·청각·촉각 인터페이스, 운전자 입력·조작, 시스템 통합과 메시지 우선순위, 대형차 DVI 디자인에 관한 지침을 제시한다.	경고 단계 설계, 다중감각 경보, 메시지 우선순위 부여로 운전자의 인지 부하를 관리한다.	튜토리얼, 용어집, 참고문헌을 포함한다. 개별 지침의 근거 연구는 원문 대조 필요.	굴착기·지게차·특수차량의 운전자 화면과 경고음을 조사하고, 이 지침의 경고 단계·메시지 우선순위·다중감각 경보 항목을 기준으로 디자인 요구조건을 만든다.	원문 스스로 표준을 대신하지 않는 보완 지침이라고 밝힌다. 2016년 이후 자율주행 관련 지침 변화는 별도 확인한다.	Human Factors Design Guidance for Driver-Vehicle Interfaces (DOT HS 812	https://www.nhtsa.gov/sites/nhtsa.gov/files/documents/812360_humanfactorsdesignguidance.pdf	공식 PDF 확인 | 미국 연방정부 보고서(공개영역 여부 원문 확인)
36	범죄예방 생활안전	**범죄예방을 위한 디자이너 가이드**	Design Council·영국 내무부 Design and Technology Alliance	2011	미확인	디자인 가이드	범죄예방을 도시공간의 조명·감시에서 제품 도난 방지, 서비스 접점, 정보·행동 유도까지 넓힌 디자이너용 방법론이다.	범죄를 제품·서비스·커뮤니케이션·공간디자인으로 예방하기 위한 Design Council 실무 가이드이다. 범죄 기회 제거, 피해 완화, 도난품 회수·범죄자 식별 등에서 디자인이 기여할 수 있음을 소개한다.	범죄기회 감소, 피해·불안 경험, 유지관리 비용, 다른 장소로의 문제 이동 가능성을 평가한다. 감시 강화가 개인정보 침해를 초래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안전문제: 제품·서비스·정보·환경 범죄예방. 범죄를 제품·서비스·커뮤니케이션·공간디자인으로 예방하기 위한 Design Council 실무 가이드이다.	2008~2010년 Design Out Crime 프로그램에서 개발한 접근과 주요 분야별 통찰을 종합한다.	범죄 기회 제거, 피해 완화, 도난품 회수·범죄자 식별 등에서 디자인이 기여할 수 있음을 소개한다.	잠재적 범죄자의 행동·사용자 경험·사용 맥락을 분석하여 유해 행동을 유발하기 어려운 조건을 만든다.	음주 관련 범죄, 인기제품 도난, 기업·학교·공기관 등의 프로그램 분야를 다룬다.	국내 공공디자인·도시안전 리빙랩에서 절도·파손·협박 등의 발생 맥락을 피해자·관리자·사업자 관점에서 분석하고 제품·서비스·정보·공간의 예방 대안을 함께 발굴한다.	프로그램 성과를 가이드 자체의 비교실험·사고감소율로 오인하지 않는다.	Designing Out Crime: A Designers' Guide	https://www.designcouncil.org.uk/designing-out-crime-designers-guide/	공식 안내페이지 확인 (PDF 직접 링크 작동 미확인) | 재배포 확인 필요
37	범죄예방 생활안전	**범죄예방 디자인 사례집**	Design Council	2015 (웹게시)	미확인	사례집	추상적인 CPTED 원칙이 실제 제품·커뮤니케이션·서비스·공간의 해결안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비교할 수 있는 사례집이다.	Design Out Crime 프로그램이 발굴한 제품·정보·서비스·공간 디자인의 범죄예방 사례를 소개한다. 제품과 서비스 디자인으로도 범죄 기회를 줄일 수 있다는 접근을 보여준다.	각 해결안의 위험원인 대응 적합성, 사용 편의성, 현장 유지관리 조건을 점검한다. 해외 사례의 실제 범죄 감소 효과는 개별 평가 자료가 확인된 경우에만 소개한다.	안전문제: 범죄 기회를 줄이는 디자인 적용. Design Out Crime 프로그램이 발굴한 제품·정보·서비스·공간 디자인의 범죄예방 사례를 소개한다.	범죄 상황과 사용자·가해자 행동을 조사해 해결 아이디어를 제안한 프로젝트 사례를 집약한다.	제품과 서비스 디자인으로도 범죄 기회를 줄일 수 있다는 접근을 보여준다.	기회 감소, 홈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 안전한 행동 유도, 이용자와 관리자의 협력을 디자인한다.	파손 시 흉기로 이용하기 어려운 음료잔 등 프로그램 대표 사례와 연계하여 소개 가능.	국내 생활안전 과제의 발굴 단계에서 범죄 유형별 기존 해결안을 분류하고, 현장 이해관계자와 문제 재정의–아이디어–시제품 검증의 사례 비교 워크숍을 진행한다.	개별 사례의 최종 적용·효과는 사례별 원문을 확인한 뒤 기술.	Design Out Crime: Case Studies	https://www.designcouncil.org.uk/design-out-crime-case-studies/	공식 무료 자료 페이지 | 재배포 확인 필요
38	범죄예방·생활안전	**영국 디자인을 통한 범죄예방 사업**	Design Council	2015 (웹페이지 2015-02-17)	미확인	자료군	동일 주제의 가이드·사례집이 어떤 공공사업 구조와 디자이너–산업계 협력을 통해 만들어졌는지 보여주는 '사업운영 모델'이라는 점이 독자적이다.	영국 Design Council이 수행한 범죄예방디자인 프로그램의 문제영역과 사업 성과를 소개하는 웹자료이다. 범죄예방을 위한 공공부문·디자이너·기업 협력 접근과 대표 사례를 설명한다.	과제별 시제품 실현율, 생산·조달 연계, 이용자 검증 여부를 관리한다. 이는 2015년 사업소개 웹페이지이므로 독립 연구결과처럼 다루지 않는다.	안전문제: 범죄예방 디자인 프로그램. 영국 Design Council이 수행한 범죄예방디자인 프로그램의 문제영역과 사업 성과를 소개하는 웹자료이다.	2008~2010년 음주 관련 범죄, 인기제품 도난, 기업(중소기업), 학교, 주거의 5개 우선 분야를 디자인으로 다룬 사업 과정을 정리했다.	범죄예방을 위한 공공부문·디자이너·기업 협력 전환. 영국에서 실현해결형 디자인 프로그램 운영.	제품·서비스·커뮤니케이션·공간을 교차하는 문제해결형 디자인 프로그램 운영.	깨지면 잘게 부서져 흉기로 쓰기 어려운 맥주잔, 휴대전화 보안 챌린지(2009), 학생 공모 Design Out Shoplifting(약 150건 응모), 학교 청소년 자문단	국내 범죄예방디자인 R&D·공모사업에서 문제 제시 방식, 참여 기관, 디자인 발주·제작·상용화 경로를 비교하고 프로그램형 과제 발굴·확산 구조를 기획한다.	2015년에 게시한 프로그램 소개 웹페이지이다. 독립 보고서로 등록하지 말고 가이드·사례집과 묶어 소개한다.	Design Out Crime programme	https://www.designcouncil.org.uk/our-work/projects-programmes/archive/article	공식 무료 자료 페이지 | 재배포 확인 필요
39	범죄예방·생활안전	**범죄예방을 고려한 공간계획**	영국 부흥리실(ODPM)·내무부 (현 GOV.UK 표기: MHCLG)	2004	109	정책지침	범죄예방을 도시계획·가로체계·접근성 등 초기 공간 선택의 문제로 보게 하는 역사적 정책자료이다(2014년 철회).	도시계획과 범죄예방을 결합하는 영국 정부의 공간디자인 지침이다. 계획단계의 선택이 접근통제·자연적 감시·공간관리 조건을 좌우한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통행자 시야, 사각지대, 활동시간별 공간 이용 변화, 유지관리 부담을 평가한다. 영국에서 철회된 과거 지침이므로 현행 기준으로 인용하지 않는다.	안전문제: 도시계획·공간 범죄예방. 도시계획과 범죄예방을 결합하는 영국 정부의 공간디자인 지침이다.	도시공간의 물리적 구성과 범죄예방 원칙을 정책적으로 연결한다.	계획단계의 선택이 접근통제·자연적 감시·공간관리 조건을 좌우한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공간 배치·동선·가시성·활동·유지관리 조건을 함께 검토한다.	영국 도시계획 환경 적용을 염두에 둔 지침과 적용원칙을 제공한다.	도시재생·역세권·주거지 계획에서 시야 확보, 주야간 이용, 자연적 감시, 공간관리의 조건을 설계 안별로 비교하고 국내 CPTED 기준과 대조한다.	2014년 3월 7일 철회되어 신 계획실무지침으로 대체된 구 지침이다. 현행 영국 규정으로 소개하지 않는다.	Safer Places: The Planning System and Crime Prevention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safer-places-the-planning-system-and-	공식 PDF 확인 (철회 문서) | Crown copyright (OGL 적용 여부 원문 확인)
40	범죄예방·생활안전	**국내 범죄예방 건축기준**	국토교통부	2015 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98호 이후 개	미확인	법령·고시	자율적 CPTED 디자인 권고와 실제로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 범죄예방 의무 기준의 경계를 구분하도록 돕는다.	대한민국 건축물·건축설비·대지에 적용하는 범죄예방 기준을 정한 국토교통부 고시이다. 건축물 유형별로 범죄예방 요소를 물리적 환경에 반영하는 법적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법정 기준 충족 여부와 주가 디자인의 안전성·사용자 경험 성과를 별도 점검한다. 고시의 최신 개정본·적용 대상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안전문제: 건축물 출입구·조명·공용공간 범죄예방. 대한민국 건축물·건축설비·대지에 적용하는 범죄예방 기준을 정한 국토교통부 고시이다.	건축법 관련 근거에 따라 자연적 감시·접근통제·영역성 확보·활동 활성화 등의 기준을 규정한다.	2019년 개정으로 500세대 이상 아파트 중심이던 적용 대상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 오피스텔로 확대되었다.	출입구·조명·대지·공용공간 등의 범죄예방 디자인 검토에 법적 요구사항을 연결한다.	100세대 이상 아파트의 측·후면 조명과 세대 외부 검침기, 소규모 주거의 침입방어 창호·담장·주차장 CCTV 기준 등이 대표 조항이다.	국내 공공건축·공동주택 개선사업에서 법적 의무 요소(출입구·주차장·공용부 등)를 먼저 점검한 뒤 생활안심디자인의 사용자 조사·운영서비스를 추가해 차별화된 디자인 범	https://www.law.go.kr/행정규칙/범죄예방건축기준	공식 무료 자료 페이지 | 공공 법령
41	범죄예방·생활안전	**서울시 생활안심 디자인 가이드라인**	서울특별시 (연구: 이음파트너스)	2020	미확인	가이드라인	국내에서 조사·참여·시범사업·시공 기준까지 하나의 자료군으로 축적된 공공안전디자인 실행 기록이다. 국내 현장 행정에 바로 참고할 수 있다.	서울시가 생활안심디자인의 도입 배경, 시범사업 경험, 시범서를 3권으로 정리한 가이드라인이다. 지역의 범죄 위험·주민 불안 요소에 대응하는 시민참여형 공공디자인 추진 절차를 설명한다.	주민의 안전 체감도와 실제 위험 노출, 시설 유지관리 상태를 분리 평가한다. 디자인DB 기능록 자료이므로 기존 게시물 연결과 추가 해설을 권한다.	안전문제: 국내 CPTED 시범사업·시방서. 서울시가 생활안심디자인의 도입 배경, 시범사업 경험, 시방서를 3권으로 정리한 가이드라인이다.	2012년 마포구 염리동 사업 이후 축적된 여러 지역의 시범사업 과정과 적용 지침을 정리했다.	지역의 범죄 위험·주민 불안 요소에 대응하는 시민참여형 공공디자인 추진 절차를 설명한다.	발견하기→정의하기→발전하기→전달하기의 과정과 지역 조건을 반영한 디자인 지침을 제시한다.	1권 개론, 2권 시범사업, 3권 시방서로 구성된다.	지자체의 범죄예방디자인 과제에서 주민·경찰·시설관리자의 조사 역할, 공간별 개선 요소, 시공도서와 운영관리 항목을 연결해 사업 발주와 성과점검 체계를 만든다.	이미 디자인DB 2023-09-04 기등록; 2020년 발행과 2021년 서울시 웹게시를 구분. 중복 등록 비권고.	생활안심(범죄예방)디자인 가이드라인 1~3권	https://news.seoul.go.kr/culture/archives/513202	공식 무료 자료 페이지 | 공공누리 출처표시-비영리-변경금지 (기등록 게시물 표기)
42	어린이안전	**어린이 상해 예방 세계보고서**	WHO / UNICEF	2008	211	연구보고서	어린이 사고예방의 우선순위를 사고 유형과 위험요인에 관한 국제 근거로 설정하게 한다.	전 세계 어린이 상해의 규모·위험요인·예방 근거를 종합한 WHO-UNICEF 보고서이다. 어린이 상해 상당 부분은 예방 가능하며 위험의 노출과 피해 심각도를 줄이는 방안이 존재한다.	예방 가능한 위험요인, 국내 사고 통계와 원문 지표의 정의·기준연도 차이, 개선 전후 위험노출을 비교한다. 국제 평균을 국내 아동사고 비율로 대입하지 않는다.	안전문제: 어린이 사고 유형·예방 근거. 전 세계 어린이 상해의 규모·위험요인·예방 근거를 종합한 WHO-UNICEF 보고서이다.	세계 각국의 상해 통계, 원인 및 예방중재 연구를 종합해 정책 권고를 제시한다.	어린이 상해 상당 부분은 예방 가능하며 위험의 노출과 피해 심각도를 줄이는 방안이 존재한다.	어린이 안전을 제품·교통·생활환경·안전정책의 개선과 연결한다.	도로교통 손상, 익사, 화상, 추락, 중독 등 분야별 분석과 예방방안을 제공한다.	국내 아동안전디자인 기획 시 익수·낙상·교통·화상 등 사고 유형을 분류하고 어린이 발달단계·이용 장소·돌봄 환경을 교차해 개선 대상과 필요한 조사자료를 선정한다.	2008년 통계·중재 근거이므로 현행 최신 통계의 대용으로 사용하지 말 것.	World Report on Child Injury Prevention	https://www.who.int/publications/i/item/9789241563574	공식 무료 자료 페이지 | 재배포 확인 필요
43	어린이안전	**키즈디자인 기본적 사고방식**	일본 경제산업성 제조산업국 디자인·인간생활시스템정책실	2011	미확인	정책·개념	사고정보와 어린이 행동특성을 산업·정책 차원에 통합하는 키즈디자인 접근을 정리한 개념 문헌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어린이의 안전과 성장을 위한 키즈디자인의 정책 방향을 정리한 자료이다. 사고를 예측 가능한 것으로 보고 제품과 환경의 조건을 개선하는 접근을 제시한다.	사업 지침에 발달단계·예상 오사용·사고사례 활용 항목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한다. 역사적 정책문서이므로 현행 일본 제도와 구분한다.	안전문제: 어린이 제품·서비스의 안전 개념. 일본 경제산업성이 어린이의 안전과 성장을 위한 키즈디자인의 정책 방향을 정리한 자료이다.	어린이의 행동특성을 반영하는 제품·공간·서비스 디자인 필요성과 사회적 역할을 설명한다.	사고를 예측 가능한 것으로 보고, 연령별 신체·행동 특성과 사고사례·신체치수 데이터를 활용해 중대사고를 예방하는 제품·환경 조건을 만든다는 접근을 제시한다.	안전성과 사용자의 발달특성, 생활 맥락을 키즈디자인 평가기준과 연결한다.	키즈디자인협의회의 「안전성 가이드라인」(2013)과 묶어 소개한다.	국내 어린이 제품·공간디자인 지침의 작성 목적과 책임 주체를 검토하고, 보호자 교육 중심 정책에서 제품·환경의 위험 제거로 이동할 수 있는 과제영역을 정한다.	일본어 자료로 국내 규제의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キッズデザインの基本的考え方	https://www.airc.aist.go.jp/lam/kd-wa-meti/BasicConceptOfKidsDesign.pdf	공식 무료 자료 페이지 | 재배포 확인 필요
44	어린이안전	**키즈디자인 안전성 가이드라인**	일본 키즈디자인협의회	2013	12	가이드라인	아동의 위험행동을 발달단계, 호기심, 신체 치수와 제품·환경 사이의 부적합으로 분석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키즈디자인 프로세스의 실천을 핵심으로 어린이 사고정보, 신체치수, 행동특성 정보를 디자인 요구조건으로 연결하는 일본 가이드라인이다.	어린이 접근 가능 위험점, 오사용 상황에서의 방호 성능, 보호자의 위험 이해도를 시험한다. 가이드라인을 국내 안전인증 규격 대신 제시하지 않는다.	안전문제: 어린이 행동·신체조건을 반영한 안전. 어린이 사고 정보, 성장·행동 특성을 바탕으로 제품·환경 안전을 디자인하는 일본 가이드라인이다.	어린이 신체 치수와 생활행동·사고 유형을 디자인 요구조건으로 연결한다.	어린이의 발달단계와 호기심에 따른 사용행동을 디자인 요구조건으로 다루며, 구조·기능 안전과 사용·생활환경 측면의 안전을 함께 고려한다.	위험한 구조·조작·접근성을 개선하고 오용 가능성을 고려한 안전디자인.	서문, 적용범위, 인용규격, 용어 정의, 키즈디자인 프로세스, 해설로 구성된 12쪽 표준 문서이다.	어린이용 가구·놀이기구·어린이집·공공시설의 사용 장면을 발달단계별로 관찰하고 손끼임·삼킴·전도·추락 상황을 사용자 요구조건과 시제품 시험에 반영한다.	일본 규격·안전요건과 국내 법령·인증은 별도 확인.	キッズデザインガイドライン「安全性のガイドライン」	https://kidsdesign.jp/csd002/	공식 PDF 확인 | 재배포 확인 필요
45	어린이안전	**어린이 사고 방지 핸드북**	일본 어린이가정청 (구 소비자청 발행)	2025-03판 확인 (2026-03 판 기재는 미대조)	미확인	사용자 안내서	어린이 안전을 보호자와 돌봄 종사자가 즉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사고유형별로 정리한 사용자용 정보디자인의 비교 사례이다.	0~6세 어린이에게 흔한 사고와 예방법·응급처치를 설명한 일본 어린이가정청 사용자용 핸드북이다. 안전제품 선택과 생활환경 정비로 일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사용자 안내를 제공한다.	위험상황 인지 시간, 예방행동 이해·회상률, 모바일 접근성 및 외국어 이해도를 사용자 시험한다. 일본의 응급처치 안내는 국내 최신 임상 지침과 교차 확인한다.	안전문제: 0~6세 사고 유형별 사고예방 정보. 0~6세 어린이에게 흔한 사고와 예방법·응급처치를 설명한 일본 어린이가정청 사용자용 핸드북이다.	질식·오용, 추락·넘어짐, 차량·자전거, 물 주변, 화상, 끼임·베임 등 사고유형별 안전수칙을 정리했다.	안전제품 선택과 생활환경 정비로 일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사용자 안내를 제공한다.